

분별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

열왕기상 3:1-15

【인도자를 위한 예화】

20세기 중반, 전쟁으로 참혹해진 베트남의 한 마을에 민간인과 병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도, 함께 예배드리던 예배당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에서 천막 하나 없이, 성경도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주민들은 매주 일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돌맹이나 나무 조각으로 임시 성찬 기구를 만들어 예배 때 사용했으며,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라 각자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읊으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호 사역에 참여한 한 목사가 그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건물도 성경도 목회자도 없었지만 그들 중심에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넘쳤으며,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혀 부족함 없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갔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본문 읽기】 열왕기상 3:1-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킬로미터 떨어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왕의 명령과 당부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정책을 확고히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에 솔로몬은 여전히 다윗성에 거주했습니다. 당시는 다윗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였지만, 백성은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신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민 33:52).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막이 아닌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한편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산당에서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은 백성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솔로몬의 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를 앞두고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 가고 있으며, 그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나요?(2절)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장소는 어디인가요?(4절)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본문은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2절). 이를 통해 열왕기 저자는 성전 짓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 하나님은 산당을 헐어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음을 열왕기서는 지속적으로 보고합니다. 그중에서도 기브온은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던 곳입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영토의 예루살렘 북쪽 약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브온의 산당이 유명한 이유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올 때 장막과 번제단이 여전히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대하 1:5~6). 솔로몬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장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전개를 고려할 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었으나 환경이 불안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신실하지 못한 자로 여기시지 않고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언약함과 한계가 보일 때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적용과 나눔 I

하나님은 '산당'에서 드린 제사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중에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을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약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후 12:10)라고 말합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는 이유는 나의 노력과 선한 행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함 중에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간절함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면 이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그조차도 나의 노력으로 해내려 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두 손을 벌려 맞아 주십니다.

관찰과 묵상 II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인가요?(9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11-13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얻어 많은 백성의 송사를 해결하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와 원수로부터의 구원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인해 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6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에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부족함을 시인합니다. 솔로몬은 능력 있고 유명한 왕이 되려는 욕심이나 자신의 평안과 번영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는 위에서 군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왕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직책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필요한 덕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분별력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와 부와 원수를 갚는 일은 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11절).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구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은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적용과 나눔 II

요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면 좋을지 나누어 보세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 즉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근본 자질입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이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소명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각자의 삶에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 6:33).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의 필요를 아시듯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위한 것을 간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간구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